



사회주의로 단절된 전통문화 사원이 이어

#지리산 뒤편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

버스를 타고 1시간이 지나자 라오스 북부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천년전부터 살아온 타이족과 최근에 정착한 흐몽족 부락으로 흙과 나무로 지었다. 전통 라오스를 체험하는 홀스테인도 가능하다고 한다. 산길을 횡단한지 5시간 만에 산간 도시 루앙프라방에 도착했다. 문경새재나 강원도 진부령, 지리산 횡단보다 험하고 좁은 길이다. 터미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루앙프라방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친환경 문화 도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버스타나 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서양인 그룹과 큰 폭폭이를 타고 중심가로 이동했다.

길거리 베틀시장에 야시장을 준비하는 노천가게가 하나둘씩 자리잡기 시작한다. 강변의 게스트하우스는 벌써 만원이다. 작고 깨끗한 목조집도 예상외로 비싸 한동안 싸고 깨끗한 숙소 찾기 씨름을 계속했다. 골목길 끝에 겨우 싱글룸을 구해 내려다보니 바로 앞집이 사원이 아닌가.

겨우 인구 3만의 루앙프라방은 옛 수도로서 고즈넉한 풍취와 우아한 자연을 갖고 있으며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가 발달된 라오스 최고의 관광 휴양 도시다.

며칠 머무른 후의 감상이지만 이곳은 동남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저녁에는 매공강변을 산책했다. 낮에는 답답가 매우 서늘하다. 강폭이 넓어서 건너편이 아득하다. 야시장을 구경하다가 한 견에 채식 뷔페라는 깃발을 만났다. 밥과 반찬, 과일, 국수 등 20여 가지 채식음식이 일금 870원 정도. 나이먹은 서양인 여행자들이 즐기기 시작한다.

라오스 녹차와 라오스 커피, 면직물등을 조금 구입했다. 라오스 면직물과 실크제품은 질이 좋고 색깔이 화려하며 값 또한 저렴하다.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 주위로 사우나와 마사지 센터가 여러곳 있어 심신이 피로한 여행객들을 위로해 준다. 나도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발마사지를 즐겨 받는다. 참고로 자유분방한 태국과 달리 라오스는 불교와 사회주의 영향으로 매춘과 마약, 음주가무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 밤 11시 이후에는 상점, 식당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2차 3차 술자리와 나이트는 허용되지 않아 재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5시 가개가 오픈되어 술을 사다가 방에서 먹을 수는 있다.

#루앙프라방 배백 즐기기

이 도시는 작으므로 도보나 자전거가 제격이다. 구 시가지는 큰 차량이 다니지 않아서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천연 무공해 지역이다. 불탄서 식민지 시절의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박물관이 된 왕궁, 구 세관 건물, 고급 저택, 초등학교 건물 등이다. 먼저 왓씨앙무안을 참배했다. 예쁜 화단과 꽃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절은 몇 개의 부속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절로서 유네스코와 뉴질랜드의 지원으로



① 루앙프라방 왕궁박물관.
② 루앙프라방 왕실사원 왓씨앙무.
③ 야시장의 채식뷔페.
④ 루앙프라방의 라오스불교 전통 기술학교사원.
⑤ 루앙프라방의 새벽시장.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보호 위해 버스·트럭 운행 '안돼' 最古 왓위수나랏 · 最大 왓씨앙통 사원 한 폭 수채화 같아

1975년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단절된 라오스 전통문화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금 떨어진 승려기술학교의 마당에서 20대 승려들 7~8명이 나무를 조각하거나 종각 위에서 북을 치는 모습을 봤다. 배낭에 남아있던 볼펜과 사탕을 털어서 주니까 고맙다고 연신 머리를 숙인다. 내가 한국불교의 선생이라고 했더니 반갑게 여기는 눈치다. 100여 명의 청소년 승려들이 건축과 조각, 불화, 불상 조조 등 주로 불교전통문화를 한가지씩 배운다.

루앙프라방은 양쪽에 매공강과 칸강을 끼고 가운데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길쭉한 구조다. 그래서 사원이 매공강쪽과 칸강쪽에 나뉘어져 있다. 매공강이 넓고 완만한 모양이라면 칸강은 수심이 깊고 언덕이 높은 모양새로 장엄하다.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강변이 있을까 하고 거듭 탄성을 발하였다. 왓위수나랏은 이곳의 가장 오래된 절이다. 1531년에 창건된 이 절은 1887년 중국의 침략으로 불탔

나 10년 후 재건됐다. 15세기의 불상과 연꽃담이 남아있다. 왓씨앙통은 루앙프라방의 대표사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560년 세타티랏왕이 건립한 왕실사원으로 전형적인 라오스 건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지붕이 급경사를 이루는 크고 장엄한 형태이다. 법당 옆의 정원에서 바라보는 매공강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 같다. 법당문과 내부는 금박으로 조각되고 생명의 나무로 모자이크돼있다. 동쪽문 안쪽에는 왕족의 납골당이 있는데 목조 나가의 왕묘비가 이끄는 거대한 반야용선이 보관돼 있고 금박벽화가 찬란한 빛을 비춘다. 그 외 왓퉁론, 왓 씨앙마엔, 왓똘렛 사원 등이 변화기를 벗어난 곳에 자리잡고 있다. 푸씨는 작은 산언덕에 자리한 전망대 같은 곳으로 석양이 아름답다. 불탑과 왓탑푸씨 동굴사당이 있으며 왓꽃타트왓유적이 있는데 14세기 파야센타이왕

이 부처님의 발자국 유적이 사원을 세웠다. 건너편의 왕궁박물관은 왓씨앙통과 함께 관광코스의 일점이다. 1904년 사사방왕 왕궁으로 1959년 왕자가 계승했으나 1975년 좌파혁명으로 왕실가족이 모두 유배,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하늘로 치솟은 야자수문을 통과해 구경한 왕과 왕비의 거실 침실 접견실, 잘 보관된 도자기 그릇, 가구 유물들,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의 희귀한 불교공예, 금불상 등을 보면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라오스의 고난과 제후무상을 느끼게 했다. 서구식민지와 포탄세례, 오랜 가난에도 여기 사람들은 궁색하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고 낙천적이고 여유롭게 보인다. 깊은 신앙심과 유순한 국민성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며 운명을 극복할 의지가 강한 사람들로 보인다. 저녁 베틀시장에서 안동소주 맛과 똑같은 증류소주 라오소오맛을 봤다. 또 맥거리 비슷한 달작 지근한 술도 있어 작은 잔으로 시음했다.

#안동소주 맛과 같은 증류소주 라오소오의 향기
뜨거운 기후에 샤프란 색깔의 갈땀은 승복이 어울리듯이 뜨거운 날씨에 도수 40℃의 소주가 필요한가 싶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가을 날씨처럼 일교차가 급격히 떨어지고 새벽녘에는 잠비를 걸쳐야 한다. 한기가 도는 밤중, 새벽에 소주가 꼭 필요할 것이다. 루앙프라방의 아침시장은 한번은 불만한 명물, 왕궁박물관 뒤편으로 좌우로 펼쳐 길바닥시장은 없는 것이 없는 만물시장, 식량 야채 육류 생선 과일 등이 푸짐하고 이름 모를 약초와 버섯이 그득하다. 생강이 이 지역 특산물인지 국산생강의 열매나 엄청나게 커서 경탄했다. 누들쌀국수로 아침요기를 때우고 강가에 나가 배를 한번 타볼 요량이었으나 웬걸, 시간표를 보니까 단거리의 없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 며칠 걸리는 코스뿐이다. 저녁 버스로 떠나므로 맞지 않았다.

전통음악 CD를 구하려고 묻고 물어서 시내 구시장을 한바퀴 돌았으나 현대 DVD만 있을 뿐 전통음악 CD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어찌 방탄한 왕궁박물관에 다시 가서 비싸게 구입했다. 귀국한 후 들어보니 문명의 오염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라오스인의 노래와 약기가 마치 범패를 듣는 듯한 느낌과 화평한 음악이어서 여러 개를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동글탑사, 코끼리트레킹, 레프팅, 홀스테인, 산악자전거 여행의 투어가 많다. 저녁 6시에 출발한 만원버스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중국 운남성으로 통하는 우뚝사이에 정차, 아침 8시에 국경도시 웨이씨에 도착했다. 산길만 12시간 총 14시간의 지루한 TV의 소음에 한숨도 못 잤다. 간단한 출입관리소의 여권 비자 심사 이어 5분 만에 태국의 치앙마이공항 언덕에 배가 닿았다. 여기서 끝낸 삼가지는 지척, 역시 태국은 부자 냄새가 물씬나는 동네로 모든 것이 쾌적해서 여행자 천국이다. 시인, 동아사이클문화연구원소장

영천만불사 방생법회 & 팔공산 갓바위 기도회

성불하십시오. 아름다운사찰 영천만불사 용천지에서 방생법회행사와 신비한 갓바위 부처님을 뵈는 행사로 불교기업체인 한국영농조합의 후원으로 단돈 10,000에 준비 하였습니다.

최신형관광버스왕복+아침·점심공양+방생법회+팔공산 ₩10,000

▶출발일 및 장소 :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장소에 출발가능(30명이상)
▶오전8시출발~차내에서 찰밥으로 아침식사~협찬사(30분간)~영천만불사도착~방생법회행사 및 사찰답사~점심공양~팔공산 갓바위

◆ 만불사 방생법회 코스외 에도 경주감포·충주호·동해추암.. 등 다른지역 방생행사도 가능합니다.

동학사·갑사·계퇴사

₩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동학사~중식~갑사~계퇴사~도착

송광사·선암사·쌍계사

₩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송광사~중식~선암사~쌍계사~도착

(주)SK투어 불교사업단 ☎1644-9446